

프로젝트 완료 보고서

1. 프로젝트소개

- '약학정보원' 어플 리디자인

2. 팀 내에서의 역할

- 경쟁어플 조사 및 어플 사용자들의 사용후기 정리
- 조별 토의 후 토의내용 정리 및 자료제출
- 프로토 타입 페이지 연결
- 프로토타입 중 부작용리포트, 메모장, 검색결과창,즐거찾기,카메라 담당

3. 잘된점

- 의견존중 - 어떠한 의견이든 제시하고 경청하며 서로 존중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.
- 파트분배 - 각자가 맡은 부분을 모두 다 열심히 해왔으며 남에게 미루지 않고 서로 하려는 분위기가 있어서 프로젝트 진행이 수월했다.
- 보완 - 부족한 부분을 팀 내 카톡방에 공유하며 어떻게 더 좋을지 골라주며 파트별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게 좋았다.

4. 부족했던 점

- 각자 파트 공유 - 같은 어플 내에서 각자 다른 파트를 맡게 되는데 사용되는 색깔, 폰트, 분위기가 동일해야하는데 각자 맡은 부분 공유를 잘 하지 않아 다시 통일성 있게 재구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.
- 정확한 피드백 - 서로간 피드백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말해 수정을 하는게 아니라 자신이 하겠다며 마무리 짓는 부분이 아쉬웠다.

5. 느낀 점

★ 조별과제 자체를 처음 해 본 내가 느낀 건 협업 과정에서 공유는 정말 중요하다. 각자 능력이 다 다른 만큼 서로의 작업물을 공유하며 진행했다면 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이 나왔을 거라 생각하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.

조별과제를 하게 되며 사용한 프로그램과 친숙해진 기분과 조사를 위해 찾아 본 여러 사이트들이 나중에 나에게 다 도움이 되어 좋았으며,

여러사람과 협동하여 작업물을 만들다 보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였으며 특히 디자인이 많이 부족하다 느꼈다. 디자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여러 어플리케이션 디자인도 찾아보고, 색 조합을 도와주는 사이트에 들어가 확인도 하며, 팀원들에게 여러번에 피드백도 받았다.

그 결과물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팀원들이 없었다면 그정도의 결과물도 나오기 어려웠겠다고 생각한다. 혼자 고민하는 것 보다 여러 사람과 의견을 나누는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는걸 느꼈으며,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알게해준 조별과제 였다고 생각한다.